



향가의 언술방식과 신라인의 사회의식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in Hyang-Ga

저자
(Authors) 류해춘
Ryoo Hae-Choon

출처
(Source) [우리문학연구 18](#), 2005.8, 129-156(28 pag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18](#), 2005.8, 129-156(28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문학회](#)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80031>

APA Style 류해춘 (2005). 향가의 언술방식과 신라인의 사회의식. 우리문학연구, 18, 129-1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5 09: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향가의 언술방식과 신라인의 사회의식*

류 해 춘**

목 차

I. 서 론	IV. 주술사의 우주론적 언술을 지향 한 향가
II. 민중들의 삶을 표출한 향가	
III. 화랑의 이상과 찬양을 노래한 향가	V. 결 론

I. 서 론

향가는 신라인의 삶과 그 정신이 녹아 어우러진 문화 예술이다. 향가를 연구하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향가가 현대인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신라의 향가는 6세기경의 「혜성가」로부터 9세기경의 「처용가」까지 『삼국유사』에 14편이 실려 있으며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향가 연구는 향가의 해석과 배경설화 및 향가 간의 관계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향¹⁾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향가의 실증적 연구 성과는 향가를 문학작품으로서의 문예적 형상화와 그 의미

* 이 논문은 2001년도 <국제언어문학회 · 일본사회문학회 공동학술발표대회> (경주대학교, 2001년 12월 1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향가에 나타난 신라인의 사회의식」이라는 글을 다시 읽고 고친 것이다

** 성결대 교수

1)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참조.

를 해석하도록 하는 단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존재양상을 밝히려는 연구에는 향가의 배경 설화, 향유 계층의 문제, 향가의 철학사상 등을 탐색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²⁾라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14편 향가의 담당층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향가의 담당층을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 보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향가의 담당층을 설화적 인물로 보는 방법이다. 초창기의 국문학 연구자들은 향가의 담당층을 역사적 인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향가의 작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삼국유사』의 배경설화를 역사³⁾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향가의 작가를 설화적 인물로 해석한 경우는 『삼국유사』가 설화집이므로 일연의 삼국유사 편찬의식에 입각하여 작가에 관한 서술도 설화적 문맥에서 해석하려는 것⁴⁾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향가의 작가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술가조』에 나오는 향가의 예술과 관련된 구절⁵⁾을 분석하여 향가의 담당층을 연관시키고 신라인들의 사회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삼국유사에서 향가의 예술방식과 그 담당층을 암시하는 기록은 “① 신라인들은 일찍부터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많았으며, ② 대개(향가는) 시와 송의 부류인데, ③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⁶⁾라고 하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로 신라인이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신라의 백성

2) 국어국문학회편, 『향가연구』, 태학사, 1998, 참조.

3)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8.

4)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이재선, 『신라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인문과 학연구소, 1972.

5) 羅人, 尙鄉歌者, 尙矣, 盖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 <月明師 兜率歌條>

6) ①羅人, 尙鄉歌者, 尙矣, ②盖詩頌之類歟, ③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 <月明師 兜率歌條>(①, ②, ③ 등의 번호는 필자가 부여한 것임)

과 민중들이 즐겨 향가를 노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라의 향가가 시와 송의 부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와 송이 지식인에 의해서 창작된다고 할 때에, 신라를 대표하는 지식인 계층인 승려와 화랑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 아래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향가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향가에는 천지와 자연 그리고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연승인 주술사가 지은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향가의 주된 담당층은 신라 민중, 승려와 화랑, 그리고 인연승인 주술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의 「월명사 도술가」조에 제시된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원형인 향가 14편의 언술방식과 신라인의 사회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중들의 삶을 표출한 향가

일연은 ①의 구절에서 ‘신라인들은 일찍부터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많았다.(羅人, 尙鄉歌者, 尙矣)’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신라의 백성들이 향가를 숭상하였다는 것은 향가가 신라인들에게 널리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균여전』에서도 ‘무릇 사녀가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도구⁷⁾’라고 하고 있다. 이 구절은 불교의 심원한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향가에 그 뜻을 실어 펴고자 하는 균여의 「보현심원가」 창작동기가 나타난 곳이다. 이처럼 균여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도구를 향가라고 하는 데서 추측할 수 있는 의미는 향가가 매우 폭넓게 향유되었던 민중들의 문학이라는 것이다. 향가는 우리말 노래로 불리어졌기에 민중적이고 보편적인 문학이 되었으며, 신라인들은 불교의 계승을 외우듯이

7) 『均如傳』(歌行化世分).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

향가를 자유롭게 불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신라에서 향가를 즐기고 담당한 주된 부류는 신라인들 대부분인 민중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의 일반 민중들은 향가를 불교의 계승이나 민요처럼 생각하고 불렀다고 할 수 있다.

①의 구절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서는 신라의 향가 중에서 민중들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언술의 향가를 찾아보기로 한다. 민중들의 언술을 잘 드러내고 있는 향가는 4구체 향가가 많다. 8구체나 10구체의 향가도 일반 민중들이 즐겨 노래했겠지만, 민중의 의식을 지향하는 노래는 4구체의 향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민요체라고 하는 4구체의 향가인 「풍요」, 「서동요」, 「헌화가」 등⁸⁾의 작품은 민중들의 삶의 체취가 스며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설화의 기록에 의하면 「풍요」는 신라 선덕여왕 시대에 영묘사 장륙 삼존불 조성이라는 불사(佛事)와 관련하여 불려졌다. 경주지역의 사녀들이 공양하러 가며 부른 이 노래는 불사가 끝난 뒤에도 경주지방에서 계속 구전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방아를 짚으며 맞절구질 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노래가 불려졌다는 기록이 있다.

來如來如來如	오다 오다 오다
來如哀反多羅	오다 셔럽다라
哀反多矣徒良	셔럽다 의내여
功德修叱如良如來	功德닷ㄹ라 오다 ⁹⁾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노동요로서의 성격¹⁰⁾과 불교가요로서의 성격¹¹⁾을 밝히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시각을

8) 「도술가」는 4구체 향가이지만 그 내용이 우주론적 언술을 표상하고 있으며 인연승인 주술사가 부른 노래라서 우주론적 언술을 표출한 향가로 다루고자 한다.

9) 양주동, 앞의 책, 참조.

10)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모두 받아들이면서 신라인의 사회의식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한다.

표면적으로 「풍요」는 경주지역 사녀들의 두터운 신심으로 양지의 불상조성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불려진 공덕가라고 할 수 있다. 선남선녀들은 양지(良志)의 업적에 감동하여 다투어 진흙을 운반하는 일, 즉 불상을 건립하는 일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불상을 건립하는 일에 동원된 민중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알고 있던 「풍요」라는 민요를 불교의 기원가로 불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흙을 나르는 노동에 동원된 민중들의 서러움이 표현되어 있는 「노동요」라 할 수 있다. ‘서럽다’의 반복은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불만의 토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의 ‘공덕 닦으러 오다’에서는 피지배층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서럽지마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선업을 추구하면서 불만을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동요」의 배경설화와 그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른
他密只嫁良置古	눔 그스기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맛동방을
夜矣卯乙抱遣去如	바미 몰 안고 가다 ¹²⁾

『삼국유사』에서는 이 노래를 역사상 실재하는 인물인 무왕이 창작해서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서동요」가 개인의 창작인 서정가요가 아니라 공동작의 민요라는 견해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설화적 문맥 속에서 읽지 않고 노래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이 노래는 민요이고 동요라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설화의 문맥 속에

11) 김중우, 『향가문학론』, 이우출판사, 1975.
 12)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참조.

서도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불리어진 민중의 노래라는 점이 주목되어 동요라고 하는 설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에 관련된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신분의 남자와 높은 신분의 여자가 사랑을 성취하는 구조로 된 이 노래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전형적인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의 백제 무왕의 설화에 편입되면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로 개편되어 실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신라인들이 불러서 유행했던 민요를, 서동은 자신의 이름과 상대자인 선화공주의 이름을 넣어서 개편하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자신과 선화공주의 성공적인 사랑 이야기가 완성되도록 그 매개체로서 이 노래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¹³⁾

- 가) □□□님은
 남 그윽히 얼어두고
 □□□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 나) 선화공주님은
 남 그윽히 얼어두고
 맛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가)의 노래는 가장 원초적인 남녀간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노래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신라시대까지 전해오던 우리의 고유한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의 □□□부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인 고유명사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랑의 민요가 탄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나)의 「서동요」는 □□□에 선화공주와 서동(맛동방)이라는 인물을 대입시켜 새로운 민요가 되고 있다. 「서동요」

13) 임기중, 『새로 읽는 향가문학』, 아세아문화사, 1998, 14면 참조.

에는 이런 변화된 시문법이 적용되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서동은 이 노래를 불러서 신라의 선화공주와 국경과 신분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서동설화는 신라사회의 신분제도에 얽힌 사연을 반영한 노래¹⁴⁾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미천한 주인공인 서동이 생각하지도 못한 공주와 결혼하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위인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시 하층의 피지배층이 도달할 수 없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단순한 아동들의 꿈이나 정서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도와 예언이 숨겨져 있으며, 이 노래의 화자인 아동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민요¹⁵⁾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치민요의 주제는 고귀한 신분의 선화공주가 귀한 신분의 남자와 정혼을 해놓고 서동인 비천한 신분의 남자와 정을 통하려 간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처음의 혼담은 파괴되고 서동과 선화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노래는 미천한 서동을 주인공으로 하여, 선화와 결혼하게 하고 선화의 계층을 하층으로 전락시켰다가, 다시 서동을 왕위에까지 오르도록 하는 신분 상승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극적인 구성은 고귀한 신분인 공주를 미천한 신분의 서동에게로 시집을 보냄으로써 하층민들의 신분상승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헌화가」는 성덕왕(727~737)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이 시대에는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했다. 주로 가뭄과 홍수로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흉년을 만나고 유랑민이 많이 발생한 기록¹⁶⁾이 있다.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며 수로부인과 함께 기우제인 산신제와 해신제를 거행한 것은 민중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신제에서는 노옹

14) 윤영옥, 『서동요』,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15) 류해춘, 『조선시대 정치민요의 유형과 그 미학』, 『어문학』 제71집, 2000, 205면 참조.

16) 『三國史記』 卷8, 聖德王條.

이 수로부인이 원했던 꽃을 꺾어 주며 「헌화가」를 불렀고, 해신제에서는 용에게 납치된 수로부인을 데려오기 위해 민중들은 「해가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헌화가」는 철쭉꽃으로 인해 수로부인과 노옹이 서로 연결되어 기우제를 거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 가뭄으로 어려운 신라인들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이 민중들의 삶을 표출한 향가에는 민중들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의 괴로운 삶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려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화랑의 이상과 찬양을 노래한 향가

일연은 ②의 구절에서 ‘대개 향가를 시와 송의 부류(蓋詩頌之類歟)’라고 한다. 『균여전』에서도 ‘무릇 사녀가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도구라면, 원왕가는 아울러 수행하는 바탕이 된다’¹⁷⁾고 하며 수행자를 위하여 11수의 향가를 짓는다고 하고 있다. 불교를 공부하는 승려라면 당대의 지식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일연이 향가를 시부와 계송과 같은 부류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향가의 담당층이 당대 신라를 대표하는 지식인인 화랑이나 승려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문심조룡』에서는 교화에 의해서 일국을 잠재우는 것을 「風」이라 하고, 풍속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것을 「雅」라 하고, 용태(容態)를 신명에게 고하는 것을 「頌」이라 한다. 풍과 아는 인사(人事)를 서술한 것이므로 정체와 변체가 있다. 송은 신에게 고하는 것을 위주로 하므로 내용도 순수한 찬미를 위주로 한다. 「노송」은 주공 단을 찬미한 노

17) 『均如傳』(歌行化世分), 夫詞腦者, 世人戲樂之具, 願王者, 并修行之樞.

래를 편찬한 것이고, 「상송」은 전왕조의 덕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들은 선조를 제사하는 공식의 노래로 연회석에서 부르는 일상적인 노래와는 다르다¹⁸⁾고 할 수 있다.

신라시대에 시부와 계송을 창작할 수 있는 계층은 당시의 지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와 화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의 찬양과 이상을 노래하는 향가에는 「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안민가」, 「우적가」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다시 지식인의 현실 이념과 그 교화의 내용을 서술하는 시부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안민가」, 「우적가」와 유명한 인물의 삶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로 계송에 가까운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식인의 현실적 정치이념과 그 교훈을 노래하는 「우적가」와 「안민가」에 나타난 향가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적가」는 노승 영재가 지리산으로 은거하러 가다가 도적의 칼날을 만났다. 영재는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처하여 도적을 교화하고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지리산으로 은거하러가는 영재는 목숨 이외에는 빼앗길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영재에게 물질을 빼앗기를 바라는 도적의 칼날은 부처님에게 귀의하려는 그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재는 「우적가」를 통해서 도적들의 칼날 앞에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면서 칼로 위협하는 도적들까지 연민하는 인간적인 원숙함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안민가」를 분석하여 화랑이 담당하고 있는 작품에 나타난 사회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君隱父也

군은 아버지여

臣隱愛賜尸母史也

신은 사랑스런 어미여

18) 劉勰, 『文心雕龍』 卷2 (訟讚第9), 夫化偃一國謂之風, 風正四方謂之雅, 容告神明謂之頌, 風雅序人事 兼變正, 訟主告神義必純美, 魯國以公旦次編, 商人以前王追錄, 斯乃宗廟之正歌, 非譏饗之常詠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민은 어린아이라고 하실지면
民是愛尸知古如	민이 사랑을 알리도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	구물거리며 살손 물생
此盼喰惡支治良羅	이를 먹여 다스리져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아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할리면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 안이 태평하리이다 ¹⁹⁾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로서 내용상으로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민가」에서는 나라에서의 임금·신하·백성을 가정에서의 아버지·어머니·어린이로 비유하여 각각 그 책임의식을 다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노래는 임금, 신하 그리고 백성 등의 충실한 도리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신라인의 민본주의적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때 민본주의는 아버지로서의 임금과 어머니로서의 조정 신하가 제 구실을 다할 때, 어린아이인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제1단락은 제1행에서 제4행까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작가는 군신을 부모로 백성을 어린이로 비유하여 위정자들로 하여금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위정자는 백성들을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제3행과 제4행에서 ‘백성을 어린 아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위정자가 백성에게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신라사회는 왕과 신하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일삼아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

제2단락은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표현한 내용으로 제5행에서 제8행까지라 할 수 있다. 경덕왕 때는 귀족들의 잘못된 정치로 일반 백성들

19) 양주동, 앞의 책, 참조.

20) 박노준, 『신라가요의 이해』, 열화당, 1982, 241면.

의 삶은 몰락직전의 상황으로 심각하였다. 백성들의 편안한 삶은 위정자에게 달려 있는데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만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

제5행과 제6행에서 '구물거리며 살손 물생, 이를 먹여 다스리저'라고 한 내용은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는다.'²¹⁾라는 격언과 통하는 의미로 민중의 어려운 삶을 현실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제5, 6행의 의미를 '대중을 살리는데 익숙해져 있기에 / 이를 먹여 다스리더라'²²⁾라고 하며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독한 예도 있다. 이러한 해독은 작가가 왕에게 백성을 잘 보살피라는 충고를 왕도사상에 입각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어적 수법을 취한 것은 민생문제를 돌보지 않는 왕의 관심을 백성들에게 돌려놓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제7, 8행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하면서 훌륭한 정치를 하면 '나라 안이 태평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대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은 데서 나온 표현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여 왕의 신하였던 신충이 '홀연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해 입산했으며, 여러 번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해 단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살았다.'²³⁾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당시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게 되어 유민이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는 군신(君臣)이 군신다워야 하고 백성(百姓)은 백성다운 데서 상하가 화합하고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락은 제9, 10행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이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나라가 태평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군신관계를 각성시키기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이 왕답지 않은 데서 신하

21) 김선기, 『향가의 새로운 풀이-안민가』, 『현대문학』 148호, 1967, 280면.

22)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4, 29면.

23) 『三國遺事』卷5, 信忠掛冠條.

가 신하다울 수 없으며,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데서 자식의 도리를 바랄 수 없다. 자식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루어져야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성에게 그 도리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민가」는 충담사가 경덕왕 시절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직시하고 지은 것이다. 경덕왕은 전제왕권의 강화로 인해서 군신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자연재앙과 사회의 부조리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처하였다. 충담사는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안민가」를 지어 경덕왕에게 직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현실의식은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의 부조리와 정치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에 대한 비판은 작가가 모순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참된 삶을 추구하여 현실을 고양시키려는 사회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충담사는 경덕왕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지었으며, 왕에게 애민사상을 고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식인인 화랑이 지은 향가로 시경의 송과 비슷하게 훌륭하다고 인정된 인물을 찬송하는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모죽지랑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모죽지랑가」는 이 유형의 향가에 나타난 언술의 양상과 그 사회의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죽지랑을 사모하고, 효소 왕대에 이르러 노년을 맞이한 늙은 화랑인 죽지랑을 찬송하는 것²⁴⁾이라 할 수 있다. 죽지랑은 화랑으로서 신라의 삼국 통일 시기에 전장의 풍진을 겪으며 국운을 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일에 몸을 바쳤다고 한다. 이 작품의 작가인 득오는 위험에 처한 자기를 구원해준 늙은 죽지랑의 훌륭한 인품을 잊지 못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

24) 윤영옥, 『한국의 고시가』, 문창사, 1995, 220면.

去隱春皆理美	간봄 그리매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든 것사 우리 시름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아름 나토샤온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즈시 살쫂 디니저
目煙廻於尸七史伊衣	눈 돌칠 스이에
蓬烏支惡知作乎下是	맛보옵디 지소리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郎여 그럴므스미 녀올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다북 굴허헤 잘밤 이시리 ²⁵⁾

제1행과 제2행은 시상을 일으키는 구절로 젊은 봄날의 화려했던 화랑시절을 회상하면서, 화려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늙은 화랑의 모습으로 변해있는 죽지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3행과 제4행은 앞 구절의 시상을 계승하여,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속담처럼 보편적 진리를 묘사하고 있다. 즉, 죽지랑의 아름다운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죽지랑을 만나고자하는 득오의 기원은 더욱 처절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죽지랑의 인간됨을 구체화하면서 아름다움의 지속과 파괴 사이에 나타나는 극도로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제5행과 제6행은 전환의 시행으로 화자는 제3행과 제4행에서 보여주었던 극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매개체로, 죽지랑과의 만남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화자인 득오가 죽지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에 도달한 것이다. 화자인 득오는 죽지랑이 나이가 많은 화랑이므로 곧 삶의 피안으로 가 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살아서 한번 만이라도 만나고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삶이란 그 자체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의 무상

25) 양주동, 앞의 책, 참조.

함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화자인 득오는 아주 짧은 순간인 눈 깜빡할 사이이라도 죽지랑을 한번 만나보고자 한다.

제7행과 제8행에서 화자는 ‘낭이시여’라고 하며, 사모하는 화랑의 이름을 불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죽지랑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리워하는 주체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복쑥 우거진’ 것이나 ‘밤’과 같은 속세의 어려움도 참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복쑥’과 ‘밤’은 어두운 이미지로 속세의 미로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다복쑥과 같은 어려움이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다시 희망의 미래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현실은 다복쑥이나 밤과 같은 세속의 어두운 상황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죽지랑과 같은 선한 인물이 익선과 같은 악한 인물과의 대결에서 힘들게라도 승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결구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극적이고 염세적인 의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희망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다.

『모죽지랑가』에 등장하는 화랑은 죽지랑과 화자인 득오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득오는 탐욕적인 익선을 통해서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렸고, 죽지랑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구해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죽지랑은 만년의 늙은 화랑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미륵의 화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원숙한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죽지랑은 신라가 통일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는 충신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문무를 잘 겸비한 화랑이었고, 효소왕대의 득오는 삼국통일이 끝난 뒤 죽지랑의 휘하에서 근무를 하다가 죽지랑의 인품에 감화를 받아 이 노래를 지었다. 사람들은 인간의 세상이 각박하면 할수록 죽지랑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여 한계에 부딪쳐도 좌절하지 않고 화랑정신을 드러내는 인물인 죽지랑을 찬양하고 있다.

요컨대 향가를 대개 ‘시와 송의 부류(蓋詩頌之類歟)’라고 한다면, 「안

민가』와 『우적가』는 현실의 이념과 그 교화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부라고 할 수 있고,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등은 한 인물의 삶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인 게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향가는 대부분 화랑이거나 승려계층에 의해서 지어진 향가이다. 이러한 화랑과 승려계층이 창작한 향가에는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적인 이상과 그 고뇌를 노래하면서 인물을 찬양하거나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려는 사회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주술사의 우주론적 언술을 지향한 향가

일연은 ③의 구절에서 신라의 향가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 非一)’라고 한다. 아마도 향가는 자주 신라인들에게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마력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일연이 향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인 이유는 향가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제되어 연주되면 歌와 詩, 그리도 文과 賦가 된다고 한다. 사방의 말은 비록 같지 않으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각기 그 말로써 절주를 삼아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통할 수 있다고 한다.²⁶⁾

이처럼 일연은 향가의 기능과 효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는 향가를 『삼국유사』에 기록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담당층은 지식인이나 화랑들 중에서도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우주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인연승인 주술사로 더욱 좁아지게 된다. 이 범주의 노래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다회성을 속성으로 하

26) 金萬重, 『西浦漫筆』, (洪寅杓 譯註, 『西浦漫筆』, 一志社, 389면), “人心之發於口者爲言, 言之有節奏者爲歌詩文賦. 四方之言雖不同, 苟有能言者, 各因其語而節奏之, 則皆足以動天地通鬼神.”

지 않고, 제의적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회성을 속성으로 한다.

이러한 노래에는 「혜성가」, 「처용가」, 「도술가」, 「원왕생가」, 「천수대비가」 등의 작품이 있다. 이들 노래는 다시 현실의 어려움을 향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주술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혜성가」, 「처용가」, 「원가」와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담당층의 소원과 소망을 기원하면서 현실에 제기된 갈등을 해결하려는 불교 찬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술가」, 「원왕생가」, 「천수대비가」로 나누어진다.

먼저, 불교의 산화의식을 통해서 두 해가 나타난 재앙²⁷⁾을 해결하고 있는 「도술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散華 불러
巴寶白乎隱花郎汝隱	바치는 꽃아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곧은 마음의 명을 부러서
彌勒座主陪立羅良	미륵좌주 뵈셔라

『삼국유사』에는 「도술가」를 풀이한 한역시(漢譯詩)²⁸⁾가 이 노래 바로 밑에 존재한다. 그 한역시에 대한 해석은 “오늘사 용루에서 산화가 불러 / 조각 꽃 청운속으로 뿌려보내요 / 정중한 곧은 맘이 시키는 대로 / 모셔라 도술천의 미륵보살을”²⁹⁾의 내용이 된다. 한시와 향가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시가 향가를 직역했다기보다는 의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는 향가의 ‘차의(此矣)’가 한시에서는 ‘용루(龍樓)’, 향가의 ‘미륵좌주(彌勒座主)’가 한시에서는 ‘도술대선가(兜率大僊家)’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설화의 기록에 나타난 월명사는 피리를 잘 불어 달밤에 달을 멈추게

27) 류해춘, 「월명사의 향가문학과 그 배경설화의 연구」, 『어문론총』 31호, 경북어문학회, 1997, 참조.

28) 『三國遺事』卷七, 月明師兜率歌條, “龍樓此日散花歌 / 挑送青雲一片花 / 殷重直心之所使 / 遠邀兜率大僊家”

29) 서수생, 「도술가의 성격과 사뇌격」, 『동양문화연구』 제1집, 동양문화연구소(경북대), 1974.

도 하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준 인물이다.³⁰⁾ 국선의 무리인 월명사는 불교의 교리와 의식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화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륵불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작품에서 하늘에 해가 둘이 나란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경덕왕은 인연이 있는 승려를 불러서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의 변괴인 두 해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을 막아보고자 하였다. 월명사가 의식에서 부른 노래는 불교 의식요가 아닌 향가인 「도술가」를 불렀다. 불교의 의식요를 잘 부르는 사람은 왕과 함께 조정의 정치를 담당하던 왕당파의 불교 승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했던 월명사라는 인연승이 나타나 불교의식요가 아닌 향가인 「도술가」를 불렀다.

자연적인 측면에서 하늘에 해가 두 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일식과 상관성이 깊다. 고대인들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이유를 국가의 정사가 어지러워 선인을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만일 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워 선인을 등용하지 않아 신하들이 임금을 배반하고 처와 첩이 남편을 능멸하며,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고 오랑캐가 중국을 침략하게 되면, 음(陰)이 성하고 양(陽)이 미약해져서, 먹힐 때를 당하면 반드시 먹히니, 비록 하늘의 운행에 반듯한 도수가 있다고 하나, 이는 실로 비상한 변고가 되는 것이다.³¹⁾

여기서는 『시전』에 의거하여 「도술가」에 나타난 ‘이일병현(二日並現)’ 현상을 일식현상과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하늘에 나타난 일식현상은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세력대립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 나타난 일식의 퇴치는 왕당파와 반왕당파의 세력 다툼에서 반왕당파에 있던 무리를 왕당파로 전향하게 함으로써 하늘의 변괴인 일식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신라 하대의 지배계층인 진골세력과 육두품의 대결현상으로도 연관지을 수 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불교와

30) 『三國遺事』卷七, 月明師兜率歌條, 참조.

31) 『詩傳(小雅, 十月之交)』, 朱子の註, 참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진골계급의 왕당파가 유교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려는 육두품 계열의 한 집단인 화랑세력의 통치이념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불교의 의식요를 잘 모르는 월명사는 재야에 있던 사람이거나 반왕당파에 속해 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재야에 있었던 혹은 반왕당파에 속해 있었던 월명사가 왕이 주관하는 기원의례에 주인공이 됨으로써 왕당파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반왕당파에 속해 있던 화랑인 월명사가 왕이 주관하는 의례에 인연승이 되어 「도술가」를 부르고 하늘의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왕당파로 변신한 국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 왕은 불교와 조화를 이루는 화랑의 통치이념으로 새로운 질서를 신하에게 약속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도술가」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불교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론적 언술로 왜군을 퇴치하려는 「혜성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혜성가」는 신라 진평왕(579~631) 때에 용천사가 지은 작품으로 『삼국유사』에 작품이 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이다. 진평왕 때에는 화랑도의 사회적 인식이 급상승하면서 화랑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배경설화에 의하면 진평왕 때에 혜성이 나타나자 왜병이 침입하여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러 위기를 모면했다는 내용이다.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유람을 가려는데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을 범했다. 낭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여행을 중지하려고 했다. 이때에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변괴가 곧 사라졌고, 일본 군병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니 오히려 경사가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며 화랑들을 보내어 풍악을 유람하게 했다.³²⁾

32) 『三國遺事』卷五, 融天師 彗星歌 眞平大王條.

혜성의 출현은 흉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때마침 일본병이 혜성의 출현을 빌려서 침략을 해온 것에 있다. 따라서 여러 번의 혜성 출현이 있었어도 진평왕대의 경우에만 노래를 짓고 화랑의 행차가 멈추어지는 등의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세 화랑은 왜 풍악에 유람을 가는 것을 중지했을까? 화랑의 무리는 평화로운 시절에는 현좌충신, 전쟁의 시절에는 양장용졸이 되는 수련단체이므로 일본군의 침략소식에 세 화랑은 출정하기 위해서 유람가는 것을 중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용천사가 「혜성가」란 향가를 지어 노래하니 하늘의 혜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혜성가」가 「도술가」와 마찬가지로 천지를 감동시킨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舊理東尸汀叱

乾達婆矣遊烏隱城叱朕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

烽燒邪隱邊也藪也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옛날 동쪽 물가

乾達婆의 눈 城을랑 바라고

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풀이여

세 화랑의 山 보신다는 말씀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이여 하고 사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³³⁾

이 작품의 제1행에서 제4행까지는 왜병의 침입과 이에 대응하는 토속신앙의 호국의식이 나타나 있다. 신라 쪽에서 보면 성지인 ‘건달과가는 성’을 넘보는 왜군은 심대성을 범하는 혜성과 동일한 존재이다. 여기서 ‘건달과의 성’은 신기루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신기루는 선령이 노니는 것으로 관념화되어 있는 환상적 누각으로서 화랑도에서

33)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는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신기루가 위치한 곳은 경주에서 동쪽 9리에 있는 화랑도의 성산인 狼山으로 되어 있다. 그 낭산 넘어 동해변에 왜군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선령이 노니는 낭산의 신기루를 환기해 줌으로써 화랑도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일이다.³⁴⁾ 용천사는 일본의 어이없는 침입을 알고 일본 침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제5행에서 제8행까지는 세 화랑과 또 다른 재앙인 혜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화랑이 무리를 이끌고 ‘산 보러 가는’ 것은 화랑도의 遊娛山水³⁵⁾라 할 수 있다. 유오산수는 산신과 교감하는 신성참배라고 할 수 있다. 신성제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왜병과 혜성이라면, 이 재앙들을 물리쳐야 할 인물은 절대적 호국의식과 전통신앙의 기저 위에서 있는 화랑이다. 따라서 화랑은 현실적 사건인 왜병침입을 화랑도의 호국의식을 바탕으로 삼화랑이 출정하여 해결하였고, 초현실적인 사건인 혜성출현은 용천사가 가악으로 천지신명에게 알려서 해결했다.

제9행의 차사는 시상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장치이며, 호흡상의 휴지를 두고 앞뒤의 의미적 연관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달은 떠가 버렸더라 /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하고 詩想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므로 결국은 凶兆를 吉兆로 바꾸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 ‘달’은 원문에 ‘達’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月의 의미로 해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달’을 산으로 해석하고 狼山으로 추정하며, ‘達阿羅’를 ‘산아래’로 해석한 견해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³⁶⁾ 결국 결국은 앞에서 반복된 왜병침입과 혜성출현이라는 사회적인 재앙을 물리치고 편안한 사회로 안착하는 세계관적 지평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화랑도의 사상인 하늘과 인간이 함께 기뻐하고 백성들의 편안함을 성취하

34)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154면.

35) 김태준, 『화랑의 풍류정신』, 『화랑문화의 신연구』, 경상북도, 1995.

36)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참조.

려는 우주론적 언술로 호국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솔가」와 「원왕생가」 그리고 「천수대비가」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다같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변괴를 뽑아버리는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식이나 수도장에서 불리어진 이들 기원가는 오랜 세월동안 차츰 양식화되어 불교의식 절차에 기여한 고정된 형식으로 굳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솔가」는 불교를 신봉하는 왕당파의 지배계층이 육두품 계열의 한 집단인 화랑 세력을 흡수하려는 의도로 불리어진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원왕생가」는 광덕이나 광덕의 처를 비롯한 모든 불도들이 두루 부른 노래로 이해되며, 「천수대비가」는 청원자의 구체적인 탄원 내용에 따라 가사의 일부가 변하면서 불교를 찬양하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노래가 되었다. 이처럼 불교를 주제로 하는 기원가는 인연이 있는 승려를 내세워 기존의 지배층이 신봉하는 불교와 화랑의 새로운 질서를 신하에게 약속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혜성가」, 「처용가」, 「원가」 등에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불교가 아닌 향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주술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혜성가」에는 하늘의 신호를 화랑 세력이 지혜를 모아 단합하고 화합하여 일본의 군사를 물리치고 있다. 이 작품에는 화랑도의 사상인 하늘과 인간이 함께 기뻐하고 백성들의 편안함을 성취하려는 우주론적 언술로 호국의식을 담고 있다. 「원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간절한 사연이 담겨진 노래이다. 신충은 효성왕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원가」를 지어 궁궐에 있는 잣나무에 부치자 잣나무가 마르기 시작하였고, 왕이 신충에게 벼슬을 주자 잣나무가 다시 소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충의 간절한 소망과 자연의 현상이 서로 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처용가」에서는 처용이 밤새도록 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 방안에 마누라와 역신이 함께 동침하고 있었다. 처용은 역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마당에서 놀이를 하면서 「처용가」를 부르니 역신이 물러갔다고 한다.

이처럼 신라인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이 우주질서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문현상이나 자연물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신라인들은 우주나 하늘에 이변이 생기면 이러한 변화가 인간 세상에도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 사람들은 주술사를 부르거나 그 이변의 원인을 제거하여 우주질서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러진 향가에는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위해 우주의 이변을 향가라는 언술로써 해소하려는 사회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삼국유사』의 향가에 관한 내용으로 '① 신라인들은 일찍부터 향가를 숭상하는 자가 많았으며, ② 대개 (향가는) 시와 송의 부류인데, ③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구절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향가의 담당층과 현실의식을 추론하고 있는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본고는 「월명사 도술가」조에 있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가의 언술양상과 담당층의 사회의식을 분석하였다. 위의 구절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명사 도술가」조에 제시된 구절을 통해서 신라 향가의 담당층을 일반 민중이 많이 부른 향가, 시와 송을 부를 수 있는 지식인의 향가, 하늘과 땅을 감동시킨 우주론적 시가의 작가로서 수도승인 주술사가 부른 작품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민중들의 언술을 잘 드러내고 있는 향가에는 4구체 향가가 많다. 8구체나 10구체의 향가도 일반 민중들이 즐겨 노래했겠지만 4구체 향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민요체라고 하는 4구체의 향가인 「풍요」, 「서동요」, 「헌화가」 등의 작품들은 민중들의 생생한 삶의 체취가 스며있는

노래로 미래지향적인 민중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인들의 현실적 이상과 훌륭한 인물을 찬양하는 향가에는 5편이 있다. 「안민가」와 「우적가」는 현실정치의 이념과 그 교화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부라고 할 수 있고, 「모죽지랑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등은 한 인물의 삶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노래인 계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향가는 대부분 화랑이거나 승려계층에 의해서 지어진 향가로 그 담당층이 화랑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넷째, 인연승인 주술사가 천지와 자연을 감동시킨 향가에는 6편이 있다. 이러한 향가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다회성을 속성으로 하지 않고 제의적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회성을 속성으로 한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은 「혜성가」, 「처용가」, 「원가」, 「도술가」, 「원왕생가」, 「천수대비가」 등이 있다. 이들 노래는 다시 현실의 어려움을 향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화랑세력의 주술가인 「혜성가」, 「처용가」, 「원가」와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기원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불교의 주술가인 「도술가」, 「원왕생가」, 「천수대비가」로 나누어진다.

다섯째, 세 유형의 향가는 각기 다른 사회의식과 그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담당층이 민중들을 지향하는 향가를 통해서는 민중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체취를 평담하게 서술하는 사회의식을 읽을 수 있었고, 지식인들이 담당한 향가를 통해서는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적인 이상과 그 고뇌를 찬양과 민본의식으로 승화시키는 사회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인연승인 주술사가 표출하는 향가를 통해서는 하늘과 땅과의 우주론적인 언술을 통해서 하늘의 땅의 섭리를 미리 예측하여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려는 정신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은 『시경』에서 시를 편집하는 순서인 풍(風), 아(雅), 송(頌)의 시정신과 유사하여 『삼국유사』의 향가와 『시경』의 시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일이 앞으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연을 숭배하

고 영혼을 위로하는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신라인의 특징적인 사고체계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신앙으로 우주의 삼라만상과 유형무형의 자연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이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향가의 작품 중에서 지식인과 주술사의 활약을 담은 향가가 상대적으로 많고 민중을 지향한 향가가 적은 이유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태도 즉, 향가를 인생에 교훈을 주거나 우주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와 향가가 지식인인 승려나 화랑의 문학이라고 인식하는 태도와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 ●

『삼국사기』

『삼국유사』

국어국문학회편, 『향가연구』, 태학사, 1998.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문태, 『〈삼국유사〉의 시가와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김승찬 편저, 『향가문학론』, 새문사, 1993.

김열규 외,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2.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7.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81.

김창원, 『향가로 철학하기』, 보고서, 2004.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류해춘, 「신라 〈처용가〉의 서사문맥과 그 의미」, 『문학과언어』제16집, 1995.

_____, 「신라향가에 나타난 화랑의 문학정신」, 『국제언어문학』제6집, 2002.

_____, 「화랑의 문예미학을 통해본 〈혜성가〉와 〈모죽지랑가〉」, 『국제언어문학』제5집, 2001.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반교어문학회 편,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서, 1998.

-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8.
- 劉 鏞, 『文心雕龍』(최신호 역), 현암사, 1975.
- 윤경수, 『향가·여요의 현대성 연구』, 집문당, 1993.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이연숙, 『신라향가문학연구』, 박이정, 1999.
- 이용재, 『향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백문사, 1990.
- 이찬욱·김정오, 「유오산수의 관점에서 본 혜성가」, 『우리문학연구』제17집, 2004.
-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1(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최 철, 『향가의 문학적 연구』, 새문사, 1998.
- 화경고전문학회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이 논문은 2005년 5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5년 6월 2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A Study on the Discourse and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in Hyang-Ga

Ryoo, Hae-Choon

We find only tenth-four of the these poems extant nowadays in Samgukyusa(삼국유사) in Shilla Dynasty and tenth-one of these poems in Kyunyochon(균여전) in Koryo Dynasty. Hyang-Ga is the mirror in which social customs, religious practice and poetic imagination of Old Korean are reflected.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discourse and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in Hyang-Ga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ose days and change of writer's consciousness of Shilla Dynasty. Hyang-Ga is poetry written in Shilla Dynasty, from sixth century to ninth century.

It is fundamental study to classify the type in Hyang-Ga and to clarify its characteristic discourse.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 in Hyang-Ga is depended on the theory of discourse and related to the writer's consciousness in work. To examine problems suggested above, at first I classified the tenth-four works into three type and analyzed each type through the genetic background, the theory of reflection. In the point of genetic background I concentrated on the situation of literary society in Shilla Dynasty and the discourse of Woelmyoungsa(월명사)-Dosolga(도솔가) in Samgukyusa(삼국유사). And in the aspect of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taking the variety of real society into consideration I divided works into the folk song, the lyrical song and the magic song.

The type of folk song is constituted by three works. These works are

Seodongyo(서동요), Pungyo(풍요), Hyeonhwaga(현화가) in Samkukyusa(삼국유사). The type of lyrical song is constituted by five works. These works are Changiparangga(찬기파랑가), Mojukjirangga(모죽지랑가), Jemangmaega(제망매가), Anminga(안민가), Ujeokga(우적가) in Samkukyusa(삼국유사). The type of magic song is constituted by six works. These works are Dosolga(도솔가), Wonwangsangga(원왕생가), Cheonsudaebiga(천수대비가), Hyesongga(혜성가), Wonga(원가), Choyongga(처용가) in Samkukyusa(삼국유사).

Through the theory of reflection, I came to find out that Hyang-Ga, embodying the variety of thought and sentiment of Shilla People, reviewed the folk song, the lyrical song and the magic song by which the poets produced his aesthetic effects.

In order to study these works it is desirable to widen an appreciative eye for our Hyang-Ga and to deepen the till now study continuously.

Key words : Discourse, Consciousness of reality, Hyang-Ga, Folk song, Lyrical song, Magic song, Samkukyusa.